

G나이트 크럼 화재



화김의 방화가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

— 전원차단으로 피난구 못찾아 —

사망 16명, 부상 10명

1. 일반 사항

- 건물명 : N빌딩(G나이트클럽)
- 소재지 : 대구직할시 시구 소재
- 화재일시 : 1991년 10월 17일(목요일 21시 50분)
- 발화위치 : 지하 나이트클럽 무대부
- 화재원인 : 방화
- 인명피해 : 사망 16명, 부상 10명
- 재산피해 : 5천만원

2. 건물 개요

이 건물은 '83년에 준공된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4,959㎡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서 대부분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층은 나이트클럽이다. 건물의 동쪽과 북쪽은 도로와 접해 있고, 남쪽과 서쪽은 다른 건물과 인접해 있다. 건물의 층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층	면적(㎡)	용도	내장재	소방시설
지하	883.01	나이트클럽 기계실, 전기실	석고텍스, 평스레이트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1	687.42	은행	석고보드	"
2	549.25	다방, 사무실	"	"
3~7	549.25	사무실	"	"
PH	92.95	사무실, EV기계실, 물탱크실	"	자동화재탐지설비

사고가 발생한 지하층 나이트클럽은 내부면적이 660㎡로서 정면에 무대부(30㎡)가 있고 무대앞에 출입할 수 있는 플로어(80㎡)가 있었으며, 화장실과 주방은 무대 반대쪽에 위치해 있었다. 홀에는 300석 규모의 탁자와 의자가 빼빼하게 들어차 있었고, 무

대부와 홀 바닥에는 카페트가 깔려 있었다. 벽과 천장은 불연재로 마감되어 있었으나 무대를 중심으로 가연성 장식물과 조명등이 있었다.



〈화재가 발생한 지하 1층, 지상 7층의 N빌딩〉



〈 무대부 부근 천장의 소실 모습 〉

나이트클럽의 주 출입구는 무대부 반대쪽(건물 동편)에 있는 화장실 옆에 위치해 있었다. 주 출입구는 곧바로 옥외로 통해 있고, 가장 좁은 부분의 계단폭이 1.9m로서 비

교적 피난이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었다.

나이트클럽의 비상구는 무대부와 3m 정도 떨어져 건물 서편에 위치해 있었으며, 폭 0.9m의 감종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비상구는 계단을 통하여 1층과 연결되어 있는데 계단폭은 1.3m~1.5m이었다. 출입구와 비상구에는 각각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또한, 지하층에는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기계실과 전기실은 나이트클럽 남쪽부분에 있었고, 2개의 출입문을 모두 감종방화문으로 설치상태는 양호하였다.

3. 화재 상황

화재는 저녁 9시 50분쯤 술취한 손님이 나이트클럽 종업원과 사소한 시비끝에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들고 들어와 무대에 뿌린 뒤 라이트로 불을 질러 일어났다. 술이 취한 채 이 나이트클럽으로 술을 마시러 왔던 김정수(30세, 남)가 종업원들이 「촌놈에게는 술을 팔지 않는다」면서 술을 주지 않는데 격분, 이곳에서 70여m 떨어진 주유소에서 휘발유 6ℓ가 들어있는 플라스틱통을 구입하여 비상구를 통해 다시 들어가 뚜껑을 열고 무대위에 뿌리고 가지고 있던 라이트로 불을 붙였다.



〈무대주위의 소실모습〉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무대부는 완전소실되었다. 무대장식물, 악기류, 조명기구 등이 완전히 타버렸다.

방화 당시 무대위에서는 연주가 없었으며, 무대 앞의 플로어에서는 50여명의 많은 사람들이 빠른 템포의 디스코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었고, 100여명의 손님들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불은 휘발유, 무대바닥의 카펫, 무대주위의 가연성 장식물과 조명기구 등을 태우면서 무대부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다. 불은 무대부 주위만 태웠으나 검은 연기와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나이트클럽 내부를 뒤덮었다. 불이나자 나

이트클럽 종업원은 누전에 의한 화재로 착각, 전기스위치를 내려 갑자기 정전되는 바람에 술취한 손님들이 출구를 찾는데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다.

방화법은 나이트클럽을 빠져나와 달아나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나이트클럽 앞 주유소에서 검거되었다.



〈나이트클럽 내에 있는 분전반〉

누전화재로 생각한 종업원이 전기스위치를 내려 전기가 나가는 바람에 피난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

4. 대피

무대 위에서 방화범이 뿌린 휘발유에 「픽」소리가 나면서 불이 불자 실내는 삼시간에 이수라장으로 변했다. 더욱이 전기가 나가자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여 출구로 먼저 빠져나가려고 큰 혼잡을 이루었다. 플로어에서 춤을 추고 있거나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150여명의 손님들은 무대가 불길에 휩싸이자 대부분 무대 반대편에 있는 주 출입구쪽으로 대피하기 시작했다. 주 출입구 부근에 있었던 사람들은 비교적 쉽게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플로어에서 춤을 추거나 무대 주위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들은 옥외로의 대피가 쉽지 않았다. 이들이 주 출입구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20여m 거리의 홀 내부를 통과해야만 했으나 테이블과 의자들이 뽁뽁하게 놓여 있어 대피에 방해가 되었으며, 술 취하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방향 감각을 잃고 먼저 나가려고 서로 밀고 넘어지는 바람에 대피가 어려웠다. 무대부에서 휘발유 등이 타면서 내뿜는 새까만 연기가 순식간에 홀 전체를 뒤덮어 시계가 아주 흐렸으므로 출구를 쉽게 찾지 못했고, 출구 상단에 설치된 유도등도 잘 보이지 않았다. 또한, 출구를 찾으려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유독가스를 들어마셔 정신이 혼미해져 갔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아비규환의 상황속에서 출구를 제대로 찾지 못한 손님들은 하나 둘씩 의식을 잃어갔으며 특히, 화장실 입구가 주 출입구와 붙어 있어 출구로 착각하고 화장실로 들어 갔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많이 숨졌다.

이 나이트클럽 서쪽(무대부와 인접)에 있는 비상구는 말화지점 부근에 위치해 있어 거의 사용되지 못하였다.



〈주출입구와 연결된 계단〉

주 출입구를 빠져나온 사람들은 이 계단을 이용하여 1층 옥외로 대피하였다. 가장 좁은 부분의 계단 폭이 1.9m로서 비교적 피난이 용이한 구조였다.



〈건물 동쪽의 주 출입구〉

화재가 나자 실내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출입문으로 몰려 들었다.



〈건물 서쪽의 비상구〉

발화지점인 무대부 인근에 설치되어 피난에 활용되지 못하였다. 상단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되었으나 수사를 위해 빼어갔다.



〈비상구를 통하여 1층 옥외로 나갈 수 있는 계단〉

방화벽이 이 계단을 통하여 나이트클럽으로 들어갔다.

5. 구조 및 진화

불이 나자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소방차 30여대와 소방대원 100여명이 구조와 진화활동을 전개하였다. 발화장소가 지하층으로 카펫, 내부 장식물, 조명기구 등이 타면서 내뿜는 연기와 유독가스로 인하여 내부 진입이 어려웠다. 소방대원들은 주 출입구와 비상구를 통해 홀 내부로 들어가 진화에 나서는 한편 미처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구조하였다.

사망자들은 모두 질식해 숨졌으며 화장실에서 10명, 무대와 비상구 쪽 홀에서 6명이서로 뒤엎긴 채 발견되었다.

화재는 30㎡ 넓이의 무대 부분만을 태우고 쉽게 진화되었으나 홀 내부 전체가 시꺼멓게 그을려 있었으며, 좌석이 뒤집힌 채 맥주병 등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진화작업 중에 쏟아 부은 물이 발목까지 차 올랐다.

나이트클럽 외부로는 연소확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무대부만을 태우고 쉽게 진화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실내에 가연성 내장재가 적어 방화범이 뿌린 휘발유, 무대 바닥의 카페트, 무대주변의 장식물과 조명기구 등은 쉽게 연소되었으나, 기타 부분으로는 확대되기 어려웠고 둘째, 지하층으로서 공기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연소가 활발히 진행될 수 없었으며 셋째, 소방대의 신속한 진압 작전이 주요했던 결과로 판단된다.

설치된 자체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전)는 이용되지 못하였으며, 화재는 출동 소방대에 의해 발화 14분 후인 22시 04분에 완전 진화되었다.



(검명으로 뒤덮힌 천장) 형체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새까만 검명이 천장을 뒤덮고 있다. 화재시 실내환경이 어떠한지를 짐작케 한다.

6. 인명 피해

비교적 빠른 시간내에 진화되었으며, 소실 면적도 무대부 30㎡에 불과하였으나 인명 피해는 사망 16명, 부상 10명(중상 4명, 경상 6명)으로 매우 크게 발생하였다. 사망자를 분석하여 보면, 남자 7명, 여자 9명으로 여자가 약간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 후반에서 50대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남자는 30~40대, 여자는 20대 후반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왔다. 사망자 전원은 연기와 유독가스에 질식사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사망자의 위치는 남여 화장실 10명, 비상구 부근 3명, 플로어와 인접한 홀 3명이다.

연소범위가 작은 소규모 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많은 대형참사가 발생한 것은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사망자 연령별 분포

연 령 성 별	26~29	30~39	40~49	50~59	60~62	합 계
남	1	3	2	1		7
여	3	1	1	2	2	9
합 계	4	4	3	3	2	16

가. 화재초기에는 연소가 서서히 진행하다가 FO(Flashover)를 기점으로 격렬한 연소가 일어나는 실내화재의 일반적인 상황과는 달리 방화벽이 높은 휘발유가 타면서 처음부터 급격한 연소가 일어나 사람들이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보통 FO 이전까지 직할 대피가능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이 화재는 발화직후부터 연기와 연소가스가 실내에 확산, 피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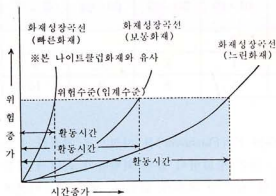
나.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나이트클럽 종업원이 전기스위치들을 내려 술 취한 손님들의 공포심을 자극, Panic현상이 가중되었으며, 연기가 자욱한 어둠속에서 출구를 찾기가 어렵게 되었다. 지하층 나이트클럽이 비교적 피난이 용이한 구조였으므로 밝은 조명이었다면 사망자중 대부분이 출구를 통한 옥외 대피에 성공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화장실 입구가 주 출입구 옆에 설치되어 출구로 착각하고 일부 손님들이 화장실로 물리는 바람에 이곳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였다.

라. 환기 또는 배연시설이 지하층에 설치되지 않아 발생한 연소가스가 실내에 계속 축적, 피난 및 인명구조활동을 어렵게 만들었다.

마. 종업원들의 손님에 대한 유도대피가 전혀 없었다. 지하층 구조에 익숙한 나이트클럽 관계자들은 자신이 먼저 대피하는데 급급하였고, 출구를 모르는 손님들을 어둠속에 방치하였다.

바. 화재가 무대에서 발생하여 부대 옆의 비상구가 피난에 활용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비상구가 발화지점에 인접하여 막히는 바람에 주 출입구 하나 밖에 이용될 수 없었다.



〈시간진행에 따른 환경 악화 속도〉

이 그림은 연소속도가 상이한 3종류의 화재가 위험(임계)수준에 도달하는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임계수준 이상에서는 사람의 생존이 불가능하므로 빠른 화재인 경우에는 대피할 수 있는 시간 간격이 매우 짧고, 느린 화재인 경우에는 대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다. 본 나이트클럽화재는 화재초기부터 실내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어 짧은 활동시간내에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생명을 잃었다.



〈주 출입구와 화장실 입구〉

상호인접·설치되어 출입구로 착각한 일부 사람들이 화장실로 대피하여 인명피해가 컸다.

7. 방화 동기

16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번 화재의 직접적인 동기는 너무나도 단순하다. 다른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2차로 이곳으로 술을 마시러 왔던 손님의 허름한 점퍼차림을 보고 「촌놈」 운운하며 종업원들이 무시한데 격분한 것이다.



〈화장실 내부〉

이곳에서 10명이 사망하였다.



〈화재 후의 홀 내부〉

의자, 맥주병 등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으며 바닥, 벽이 새까맣게 그을려 있다. 그러나 탄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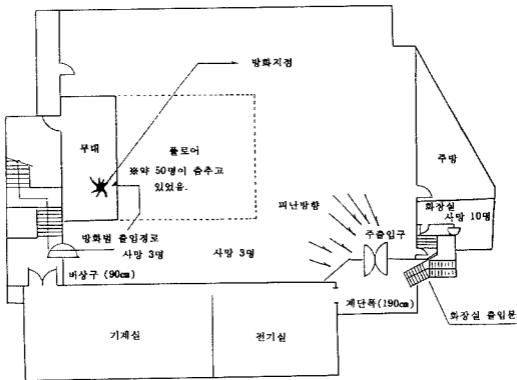
방화범 김정수씨는 국민학교를 졸업한 영농 후계자로서 흠어머니와 둘이서 대구 인근 농촌에서 살고 있으며, 지난해 10월에 결혼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업원과의 사소한 시비끝에 화김에 발작범행을 저질렀지만, 그 이면에는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 병리현상을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졌고, 그 결과 경제적·사회적 소외계층이 증가하여 사회에 대한 극단적인 반발이 총동범죄를 유발한 것이다.

8. 결론

이번 화재의 발생원인은 방화이다. 방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범죄중의 하나로서 그 시대의 사회적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사전 예방이 극히 어렵다. 그러나 대형 유흥업소에서는 방화에 이용되는 유류 등의 반입이 통제될 수 있도록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또한, 종업원에게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평상시 예방활동은 물론 화재발생시 소화작업과 고객에 대한 대피유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화재가 일어났는데도 술값을 받고자 출구를 통제한다든지 손님들이 대피중인데도 전원을 끄는 등의 부분별한 행동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하층에 많은 유흥업소가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인명안전의 측면에서는 더욱 그렇다. 환기 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여 화재시 발생하는 연소생성물을 옥외로 배출, 실내가 위험수준에 도달하는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손님들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소방대가 구조 및 진화활동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지하 나이트클럽의 평면도)